



해상순찰기 무안으로... 제주해상 안전 '구멍'

제주해경 고정익 항공기 2019년 2월 이전 결정
출동 20분 더 소요... 사고 대응 사실상 어려워
한·중·일 각축장 이어도 주권 수호에도 차질

제주에 배치된 '해상 순찰기(사진)'가 타지역으로 상주 지역을 옮기면서 제주 해상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 순찰기(고정익 항공기) 'B702호'가 해경의 항공기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2019년 2월 전라남도 무안으로 재배치된다.

지난 2008년 제주에 도입된 B702호는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에 대한 수색 구조는 물론 한·중·일 3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해양주권수호,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크게 3가지 임무를 맡고 있다. 최근 3년간 임무 실적을 보면 총 818회 순찰(이어도 382회·일반 해상 436회)에 나

서 3만6593척에 이르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어도 해역에 출몰하는 외국 관광선에 대한 대응 출동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번 B702호의 재배치로 인해 제주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해양주권 침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거리 1433km·최고 시속 370km의 B702호가 전남 무안에서 출동할 경우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약 20분 더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선박 충돌이나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해 정확한 위치와 피해 상황을 파악해 전달하는 해상 순찰기의 역할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2015년 246건



(부상 36명·사망 6명), 2016년 345건(부상 37명·사망 9명), 2017년 309건(부상 22명·사망 12명)으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해양주권 수호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곳으로 최근 중국 군용기와 관광선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이에 맞서 출동하는 해상 순찰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외국 군용항공기 등을 조기에 식별하는 구역

이 밖에도 제주해경 소속 헬기 2대(카모프·팬더)마저도 야간수색이 불가능하거나 고장이 잦아 제주 바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칫 '항공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이 보유한 고정익 항공기 6대를 3대씩 무안과 김포에 나눠 배치하는 계획이 최근 확정됐다"며 "이를 통해 인력·장비·부품 등이 원활히 공급돼 항공기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상 안전 공백에 대해서는 "불법조업이나 해상사고가 빈번한 기간에만 제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2019년 12월 출고되는 수리온 2대 중 1대를 제주에 배치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해경이 관할하는 해역은 9만2km로 해경 전체 해역 35만6940km의 25%에 달하고 있다. 송은범기자

국가·자치경찰 '추석 종합치안대책' 추진

추석 전후 범죄예방·순찰강화

제주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7일간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으로 예년과 달리 자치경찰과 협업체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19일까지를 1단계, 20일부터 26일까지를 2단계 치안대책 기간으로 설정했다.

1단계에서는 보안시설이 취약한 소규모 금융시설과 금융방,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취약 요인을 점검해 문

제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나 재래시장, 유흥가 등에 형사력을 배치해 강력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어 2단계에서는 1단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장소로 판단된 곳을 중심으로 지구대·파출소·자치경찰단·형사 등 인력을 투입해 집중 순찰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연휴 때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배달품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우도 도항선 경영진 무더기로 검찰 송치

1억 상당 주식 빼돌린 혐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업체 합병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우도 도항선 업체 A법인 전 대표 최모(57)씨 등 15명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업체 경영진과 짜고 수리비용을 빼돌린 선박 수리업체 대표 김모(51)씨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도항선 운영업체 2개사를 합병해 A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주식 1만5000주(1주당 1만원)를 1인당 1000주씩 나눠 가진 혐의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배분이 이뤄졌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은 주식 배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봤다.

또한 김씨는 A법인 관계자 윤모(62)씨와 공모해 2500만원 상당의 선체 부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물품은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제주지역 담뱃불 화재 매년 급증

2016년 79건→2017년 135건... 올해도 71건

부주의 의한 재산피해만 수십억원 이룰 듯

담배꽂초의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시36분쯤 제주시 용담2동의 한 공동주택 8층 계단에서 불이 나 13분만에 진압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단 1.25㎡가 불에 타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소방서 추산 3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담배꽂초가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주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응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식중독 의심 증세의 주 원인이 모 업체가 전국으로 납품한 '우리밀 초코 블라썬 케이크'로 지목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상황을 공유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2016년 79건, 2017년 13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에도 9월 10일 기준 71건의 화재가 일어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제주에서 부주의(담뱃불·소각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 399건의 재산피해액을 분석해 보면 >50만원 이하 245건 >100만원 미만 58건 >1000만원 미만 76건 >5000만원 미만 17건 >1억원 미만 2건 >10억원 미만 1건 등 수 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건물 옥상이나 길을 걷다 무심코 버린 담배꽂초가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착화돼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담뱃불은 조금만 주의 기울이면 화재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는 담배가 제대로 꺼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주택서 현금 절도 50대 검거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소재 주택에 들어가 2회에 걸쳐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범죄위반-절도)로 정모(58)씨를 붙잡았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30일 오전 10시52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김모(69·여)씨 집에 들어가 방안 핸드백에 넣어둔 현금 60만원을 가져간 혐의다. 또 8월 31일 오후 1시10분쯤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5만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7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3년 선고

자신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7세 여아를 유인해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장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최씨는 지난 6월 18일 오전 8시30분쯤 제주시에 길거리에서 등교 중이던 A(7)양을 인근 빌라 지하 주차장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제주 청소년 행복 Dream 콘서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가 마련한 도박문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제주 청소년 행복 Dream 콘서트'가 11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극장 로비에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연한 캠페인을 통해 도박, 인터넷 등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정보가 제공됐다.

케이프 급식 식중독 의심환자 5명 더 늘어 11일 현재 30명 완치... 의심환자는 25명

서귀포시지역 모 초등학교 식중독 의심환자가 5명 더 추가돼 누적 의심환자수가 55명으로 늘었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오전 11시 기준 5명의 의심 환자가 추가 발생했으며 30명이 완치돼 현재 의심환자수는 2

5명(학생 24명, 교직원 1명)이라고 밝혔다.

환자 중 10명이 입원, 9명은 통원, 6명은 투약과 자가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지난 7일 첫 의심환자 12명이 발생한 이후 8일 11명, 9일 11명,

10일 16명, 11일 5명 등 5일 연속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제주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난 7일부터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응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며, 식중독 의심 증세의 주 원인이 모 업체가 전국으로 납품한 '우리밀 초코 블라썬 케이크'로 지목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상황을 공유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소날건업

내 소 날 FRP 페 인 트 총 판

- 전문건설업, 방수공사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물당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서로1길 11-5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찾아오시는 길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상담예약

064) 755.1005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